

http://dx.doi.org/10.17703/JCCT.2019.5.2.207

JCCT 2018-5-26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방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을 중심으로-

Study on Determinants of the number of Chinese Tourists Visiting Korea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Factors as Variables of Interests-

한주현*, 김부용**

Han Juhyun*, Jin Furong**

요약 관광 동기나 관광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주로 분석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정치적 요인을 관심변수로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중국의 정권, 양국 간 회의나 회담 횟수,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 횟수, 한중 FTA(경제적 요인이기도 함)의 발효 등 정치적 요인이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와 관련된 정치적 우호성(FTA 발효)은 정치적 분야에서만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요소들보다 더 가시적으로 방한 중국인 관광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치적 요인과 더불어 한중 FTA와 같은 경제적 요인, 그리고 한국화장품으로 대변되는 한류와 같은 문화적 요인도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방한 중국인 관광객, 정치적 요인, 한중 FTA, 한류, 한국화장품

Abstract Unlike previous studies, which mainly analyzed factors affecting tourism motivation and tourism satisfaction, this study analyzes the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factors affecting the number of Chinese tourists visiting Korea. Empirical results show that political factors such as the Chinese regime, the number of meetings and talks between Korea and China, the number of phone call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 Korea-China FTA (also as a economic factor)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number of Chinese tourists visiting Korea. In particular, political friendly variables related to economy (ex. Korea-China FTA) has been analyzed to have a more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number of Chinese tourists to Korea than the factors that create friendly atmosphere only in the political field. In addition to political factors, economic factors such as the Korea-China FTA, and cultural factors such as Korean Wave represented by Korean cosmetics als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number of Chinese tourists visiting Korea.

Key words : Chinese Tourists Visiting Korea, Political Factors, Korea-China FTA, Korean Wave, Korean Cosmetics

*준회원,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학부생 (제1저자)

**정회원,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조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19년 2월 18일, 수정완료일: 2019년 3월 24일

게재확정일: 2019년 4월 14일

Received: February 18, 2019 / Revised: March 24, 2019

Accepted: April 14, 2019

*Corresponding Author: furongjin@inu.a.ckr

School of Northeast Asian Studies, Incheon National Univ, Korea

I. 서 론

1992년 8월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고 방한 관광이 본격화된 2000년 6월 중국인의 한국 방문 완전 자유화 이후,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사스나 메르스 같은 관광 부적격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6년 71만 명이었었던 방한 중국인의 수는 2016년 800만 명을 넘어 10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외래 관광산업에 있어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꾸준히 높아졌다.

2013년 기준 한국 내 중국인 관광객 1인당 생산 유발효과는 약 309만원,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6조 5,425억 원, 취업 유발효과는 24만 798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1] 이는 중국인 관광객 수의 증감이 한국경제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동안의 방한 중국인 관광객에 관한 연구는 어떤 요인이 한국으로의 재방문을 유도하는지,[2] 혹은 관광 동기나 관광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3]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으며, 주로 관광학의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사드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의 급감에 대하여 연구한 일부 논문 역시 감정에 준 영향과 그 감정으로 인한 관광 선택의 변화에 대해 서술하였다.[4] 따라서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는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 이유를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인 시선으로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같은 변수 상황에서의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의 변화 추이를 예측하고, 예정된 타격에 대처하여 경제적 손실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망되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중국 관광객의 방한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2015년의 메르스 사태이며, 다른 하나는 2017년의 사드(THADD) 관련 정치적 마찰이다. 전자는 관광지로서 불안한 선택지라는 점에서 관광객 수 변화에 통상적으로 더 유효할 듯 보인다. 그렇지만 2014년 대비 2015년의 방한 중국인은 2.3% 감소한 데 반해 2017년의 방한 중국인은 2016년 대비 무려 48.3%나 감소했다는 점에서 이 예상은 뒤집힌다.[5] 이는 한중의 정치적 상황 변화가 다른 요인의 변화를 압도할 만큼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의 변화에 유의미함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한중의 정치적 관계가 협력적일 때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리라는 예상을 기반으로 2007년 1분기부터 2018년 2분기까지의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의 변화가 양국의 정치적 상황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마찬가지로 경제적 및 문화적 관계가 협력적일 때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리라고 예상하고, 그 관계성을 기반으로 향후 중국인의 방한 관광이 보다 활기를 띌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한중의 정치적 상황

정치는 필리핀의 두테르테노믹스나 미국의 TVA 댐 건설처럼 경제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또 FTA나 지역경제공동체 출범과 같은 경제적인 요구와 기대에 따라 움직이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전자와 후자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정치적인 것이 차후의 경제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둘 모두 정치적 사건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정치에는 주체가 있으므로 정치적 상황은 한 국가를 집권하는 정권의 특징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정책방향 차이에 대한 연구들이 이를 잘 설명해 준다.[6] 본 연구의 조사 시기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이기 때문에 중국은 총 두 개의 정권, 그리고 한국은 네 개의 정권에 걸쳐 있다. 그러므로 후진타오 집권기와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임일, 그리고 시진핑의 취임일 및 집권 정책의 변화년도와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일을 기준으로 정권이 친중 정권인지 여부를 정치적 우호 상황에 대한 변수로 추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인 정치적 상황에 대하여서는 정상회담의 횟수와 정상회담이 아니더라도 정권 중 회담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났는지 그 횟수와 방한·방중이 이루어진 횟수, 국가 정상 간 전화통화를 한 횟수로 측정하였다.

2. 한중의 경제적 상황

관광산업은 일반적으로 관광객의 소득수준이나 관광지의 인프라와 관련이 있다. 관광 상품을 구매할 여력이 있어야 하며 구매하고 싶은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져야하기 때문이다. 이는 관광지의 물리적 속성과도 관련이 있다. 관광지의 물리적 속성은 관광지 시설물, 건축물의 외양, 유적지, 야생 상태, 기후, 쾌적성, 수질 등이 해당되며 관광경험이나 관광대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7] 또한 관광객들은 이러한 가치들이 긍정적이라고 지각되는 국가를 관광대안으로서 선택할 확률이 높다.[8] 이중에서도 관광지의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외양, 쾌적성과 수질 등은 국가 소득을 통하여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으므로 치환하여 간주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1인당 GDP가 2007년에 2만 3,100달러, 2018년에는 3만 2,046달러로 추정되므로 한국의 경제적 조건을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인프라가 갖추어진 것으로 보고 이는 따로 변수로 취급하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적 상황과 한중 관계 속에서의 경제적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

경제적 상황을 판단하는 지표로는 주로 국가의 GDP, 인플레이션율, 국가 부채, 재정 안정성, 교역 규모와 대외의존도, 내수시장의 크기, 지니계수 등으로 정의된다. 각 지표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관광산업의 잠재 수요층의 증감을 보여주는 중국의 GDP 성장률과 중국의 교역에 있어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사용하고 이외의 변수들은 취급하지 않기로 한다. 한국의 교역에 있어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다루지 않는 이유는 본 연구가 방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교역량 중 대한 의존도는 중국이 느끼는 한중 경제적 상황의 우호성에 대한 변수로 취급하기로 한다. 한중 FTA의 발효는 정치적 우호성으로도 볼 수 있으나 우선 경제적 우호성으로 분류하였다.

3. 한중의 문화적 상황

한류(韓流)는 한 사회에서 한국에 가지는 관심의 정도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지표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류를 한중의 문화적 상황에 대한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 역시 한류가 관광산업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9, 10] 이들 연구에 따르면 한류에 대한 관심이 첫 방문은 물론이고 재방문과 소비패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류는 이미 개인의 방문의도라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유효성이 검증된 지표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한중의 정치적 상황과 더불어 어떤 변수들이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이므로 이미 선행연구들에 의해 검증된 한류를 문화적 변수로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류를 중국의 포털사이트에 한류와 관련된 몇 가지 단어들에 기간별로 검색되고 유입된 횟수로 수치화하여 정의하였다.

III. 연구 설계

1. 가설 설정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중국체제의 특성상, 정치 변수가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중국식 사회주의는 기존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하는 데 있어 존재했던 문제점에 대한 중국식 대처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적으로 충분한 기반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채 사회주의 체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일부 수용한다. 다시 말해 중국식 사회주의는 중국에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과도기를 뜻하는 것으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국가 전체적인 방향성은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즉, 기존 사회주의와 다른 특수한 특징을 보이더라도 중국 역시 사회주의 국가로서 이해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연계에 있어 정치적 상황은 다른 요인들이 변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특히 사드 배치 같은 주요 정치적 변수는 한한령 논란과 맞물려 실제로 제한이 있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동안 정치적 상황은 관광산업의 수익창출 관련 연구 및 정책 제언에 있어서 주요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사드문제 역시 한한령(限韓令)이라는 중국 내부의 조치로 보고 정치적 변수라기보다는 외부적 요인으로 파악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그러나 관광객의 수 자체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도, 경제적으로 한중 사이의 교류가 늘고, 중국 내에서 한국과 관련된 문화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에 비해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율이 이전 분기와 다르다면 여태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던 변수가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른 요소들에 의한 변화를 일부 상쇄하거나, 또는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a: 한중의 정치적 우호성은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1b: 한중의 경제적 우호성은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1c: 한중의 문화적 우호성은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2. 분석 방법과 데이터

본 연구의 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이며 분기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분석 단위를 분기로 설정한 이유는, 연도별 관광객 수보다는 분기별 관광객 수를 살펴보는 것이 정책의 시행이나 정치적 상황 변화에 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유의미한 변화를 알게 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요인이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통계 프로그램은(SPSS 19.0과 SPSS 24.0: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을 사용하였다. 또한 관심변수인 정치적 요인 외에 경제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이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다.

앞서 언급했듯 본 연구는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는 한국출입국사무소가 게재한 통계자료와[11~23]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통계지표를[5] 기반으로 분기별 중국인 입국자 수를 수집하였다.

정치적 변수는 한중 정상회담 횟수, 정상회담 외 양국 간 회의 및 회담 횟수, 방한·방중 횟수,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 횟수, 사드결정 공식 발표, 그리고 중국의 정권 교체와 한국의 친중 정권 여부로 구성하였다. 한중 정상회담의 횟수나 회의 및 회담 횟수, 방한·방중 횟

수, 그리고 양국 간 전화통화 횟수는 외교부의 월간 외교일지를 참고하여 데이터를 얻었다.[24] 사드 결정 공식 발표일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사드 페이지를 참고하여 가장 먼저 글이 올라온 2016년 7월 8일을 기준으로 하였다.[25] 마지막으로 중국의 정권 변화는 당대회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한국 정권의 성향은 이명박 정권의 모든 정권을 친중으로 보는 일반적인 시각으로 하였다.

경제적 변수는 한중 FTA 발효, 중국의 GDP 성장률, 중국 교역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구성하였다. 한중 FTA 발효 일자 는 한중 FTA 홈페이지에서 일지를 통하여 확인하였다.[26] 중국의 GDP 성장률은 중국 국가통계국의 자료를 활용하였다.[27] 마지막으로 중국 교역 중 한국이 차지하는 규모는 한국 무역협회 국제무역 통계를 이용하였다.[28, 29]

문화적 변수인 한류에 대해서는 중국의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에서 제공하는 바이두지수 사이트를 이용하였다.[30] 한류를 측정하기 위한 검색어는 다른 변수들과의 공선성을 참작하여 한국(韓國), 한국화장품(韓國化粧品), 한국관광(韓國旅行), 한국가수(韓國歌手), 한국드라마(韓國電視劇)로 설정하였다. 다만 사이트가 2011년 이전의 결과는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한류 데이터의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2011~18년으로 기간이 변경되었다.

데이터는 모두 네 개의 더미변수를 포함하고 있는데 각각 사드, 한중 FTA, 중국 정권 교체, 친중 정권 여부 등이다.

IV. 실증분석 결과

1. 정치적 요인

우선 정치적 변수가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보았다. 회귀분석에 앞서 Durbin Watson을 확인한 결과 1.344로 0과 2의 사이의 값을 보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의 적합성 판단을 위해 잔차 정규성과 산점도를 확인하였다.

잔차 정규성 히스토그램은 구간별로 분포된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보여줌으로써 데이터가 분포된 모양을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림 1>을 보면 완벽한 등분산성을 보인다고 말하긴 어려우나, 정규 분포에 상당히 가까운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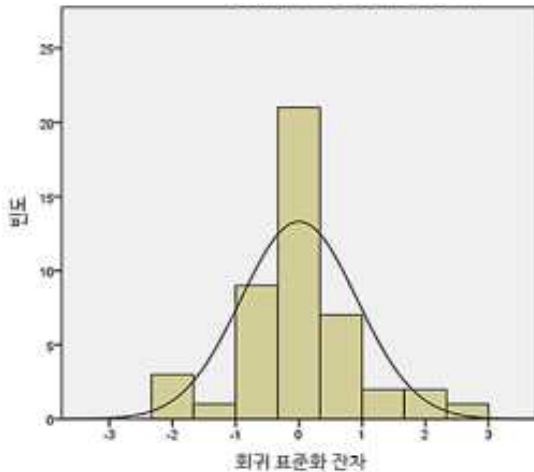


그림 1. 정치적 변수의 잔차 정규성 히스토그램
 Figure 1. Residual Normal Histogram of Political Factors

잔차 정규성 P-P 도표는 데이터들이 45도 회귀선에 가까울수록 다중회귀분석의 모델 가정을 준수했다고 본다. <그림 2>에서 보는바와 같이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이며 대각선에 가까워, 정치적 변수가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에 미치는 영향에는 정규성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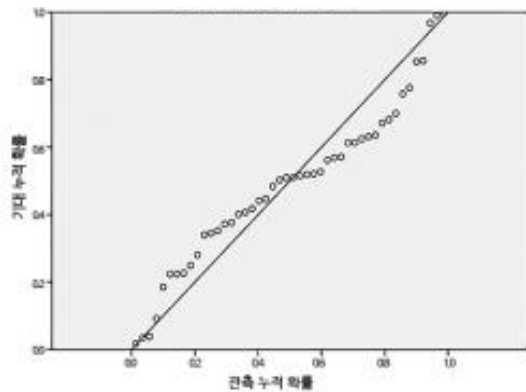


그림 2. 정치적 변수의 잔차 정규성 도표
 Figure 2. Residual Normality Diagram of Political Factors

산점도는 표준화 잔차(y축)와 표준화 예측값(x축)의 관계를 보여준다. 산점도는 앞선 두 가지 검정과 다르게 일정한 패턴이나 상관성을 보이지 않아야 다중회귀분석의 가정을 충족한다. 잔차의 독립성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 3>은 데이터들이 특정 구역에 모여 있으나 특정한 패턴을 띄지는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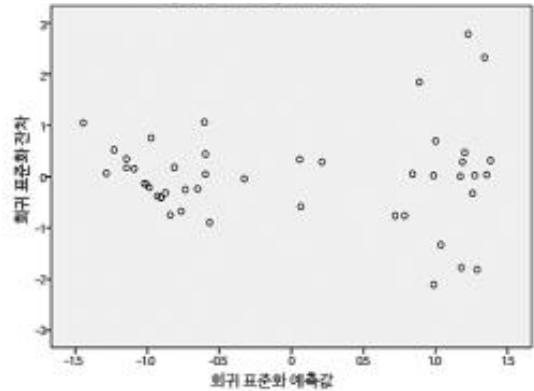


그림 3. 정치적 변수의 잔차 산점도
 Figure 3. Residual Scatter Plot of Political Factors

즉 정치적 변수와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은 완벽하지는 않으나 정규 분산과 정규성, 독립성을 보이고 있다.

정치적 변수가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72%의 설명력을 가지면 신뢰 구간 99%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7개 정치변수 중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 횟수, 한중 회담 및 회의 횟수, 중국 정권의 교체 등 세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중 간 회담 및 회의 횟수가 많을수록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 횟수가 많을수록 중국인 관광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 횟수가 많다는 것은 양국 간 정치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간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시진핑 정권이 후진타오 정권에 비해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진핑 정부 들어 한중 FTA를 체결한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예상과 달리 사드 배치의 경우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는 있으나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이 한한령을 실시한 시기가 사실은 1년 반 정도로 매우 짧아 전체 회귀분석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1.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의 결정요인: 정치적 요인
Table 1. Determinants of the Number of Chinese Tourists Visiting China: Political Factors

	t값	p값
양국 간 정상회담 횟수	-1.38	(0.175)
한중 회담 및 회의 횟수	1.70	(0.094)*
외교부 기록 방한 및 방중 횟수	-0.14	(0.889)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 횟수	-2.40	(0.021)**
친중 정권 여부(친중 정권 1, 그 외 0)	0.30	(0.766)
정권 교체 여부(후진타오 0, 시진핑 1)	5.44	(0.000)***
사드결정 공식 발표	-0.85	(0.401)
N=46, R2=0.722, 수정된 R2=0.670, F=0.000, Durbin Watson=1.344		

2. 경제적 요인 (정치+경제적 변수)

다음으로 기존의 7개 정치적 변수에 한중 FTA 발효, 중국의 경제성장률, 중국 교역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등 세 개의 경제적 변수를 추가하여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마찬가지로 회귀분석에 앞서 잔차 히스토그램과 잔차 정규성 도표, 잔차 산점도를 확인한 결과 다중회귀 분석의 모형을 준수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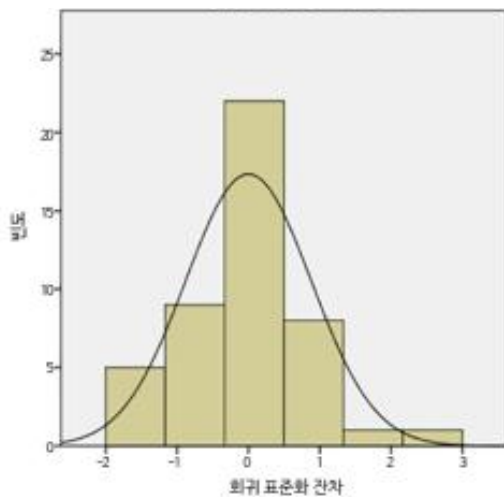


그림 4. 정치+경제적 변수의 잔차 정규성 히스토그램
Figure 4. Residual Normal Histogram of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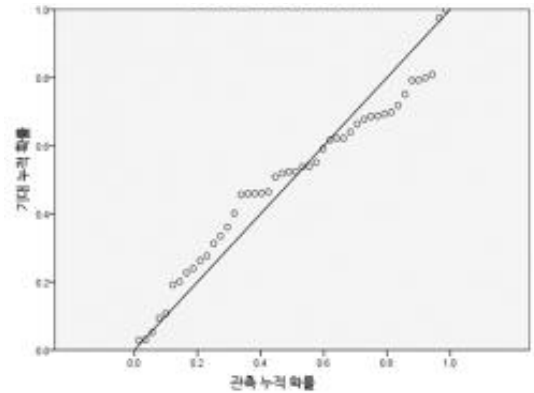


그림 5. 정치+경제적 변수의 잔차 정규성 도표
Figure 5. Residual Normality Diagram of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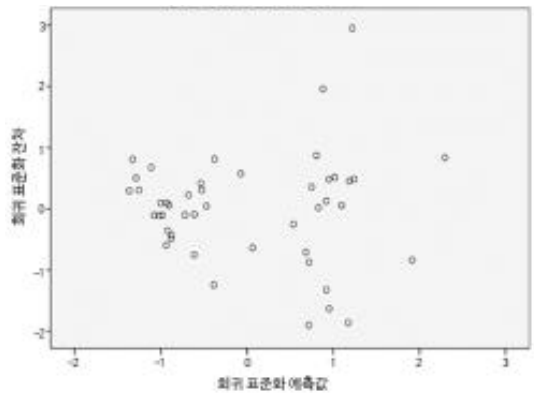


그림 6. 정치+경제적 변수의 잔차 산점도
Figure 6. Residual Scatter Plot of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한 <표 2>를 보면 Durbin Watson 값이 1.678을 보이고 있는데 2에 근접하므로 분석결과가 다중회귀분석 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모형은 78%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앞선 모델에 비해 설명력이 높아졌다.

정치적 변수를 살펴보면 앞서 정치적 요인의 영향만을 분석했을 때와 비교하여 한중 회담 및 회의 횟수는 유의도가 사라졌으나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 횟수와 정권 교체 여부의 2개 변수는 유의성이 지속되었다. 즉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 횟수가 많아지는 등 정치적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시진핑 정권 시기가 후진타오 정권 시기에 비해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났음을 시사한다. 3개 경제적 변수 중 한중 FTA의 발효가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중 FTA는 상품 분야

관세장벽 철폐 외에도 투자, 서비스 분야의 비관세장벽 완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양국 간 상호 관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한편,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된 것과 관련되며, 마침 본 연구의 분석기간이 2008년부터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교역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0년대 중반 이후 한중 양국 간 상호 보완성이 약화되며 하락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2.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의 결정요인: 정치+경제적 요인
 Table 2. Determinants of the Number of Chinese Tourists Visiting China: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t값	p값
양국 간 정상회담 횟수	-1.272	(0.212)
한중 회담 및 회의 횟수	0.317	(0.753)
외교부 기록 방한 및 방중 횟수	-0.111	(0.912)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 횟수	-2.931	(0.006)***
친중 정권 여부(친중 정권 1, 그 외 0)	0.977	(0.335)
정권 교체 여부(후진타오 0, 시진핑 1)	3.013	(0.005)***
사드결정 공식 발표	1.853	(0.072)*
한중 FTA 발효	2.590	(0.014)**
중국 GDP 성장률	-1.026	(0.312)
중국 교역 중 한국의 비중	-1.372	(0.179)

N=46, R2=0.783, 수정된 R2=0.721, F=0.000,
 Durbin Watson=1.678

3. 문화적 요인 (정치+경제+문화적 변수)

마지막으로 정치적 요인, 그리고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문화적 요인이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보면 우선 Durbin Watson 값이 2.627로 나타나 2와 4 사이의 중간 값을 지나 2에 가까워 분석결과가 다중회귀 분석 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정치적 변수 또는 경제적 변수로 볼 수 있는 한중 FTA 발효가 여전히 매우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한중 FTA 발효가 중국인의 대한 관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문화적 요인인 한국화장품이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한류의 관광 증대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세 가지 요인을 모두 포함시킨 동 모형은 무려 94%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표 3.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의 결정요인: 정치+경제+문화적 요인

Table 3. Determinants of the Number of Chinese Tourists Visiting China: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Factors

	t값	p값
양국 간 정상회담 횟수	-1.451	(0.169)
한중 회담 및 회의 횟수	-0.558	(0.586)
외교부 기록 방한 및 방중 횟수	0.763	(0.458)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 횟수	-1.009	(0.330)
친중 정권 여부(친중 정권 1, 그 외 0)	-0.111	(0.913)
정권 교체 여부(후진타오 0, 시진핑 1)	0.161	(0.875)
사드결정 공식 발표	-0.051	(0.960)
한중 FTA 발효	3.129	(0.007)***
중국 GDP 성장률	0.271	(0.791)
중국 교역 중 한국의 비중	-1.406	(0.182)
바이두 검색 韓國	-2.212	(0.440)
바이두 검색 韓國化粧品	5.466	(0.000)***
바이두 검색 韓國旅行	1.199	(0.250)
바이두 검색 韓國歌手	-1.202	(0.249)
바이두 검색 韓國電視劇	0.339	(0.740)

N=46, R2=0.938, 수정된 R2=0.858, F=0.000,
 Durbin Watson=2.627

마지막으로 유의한 값을 보인 정치+경제+문화적 변수 모형이 다중회귀분석의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히스토그램, 회귀선, 산점도를 통해 확인한 결과 모두 충족됨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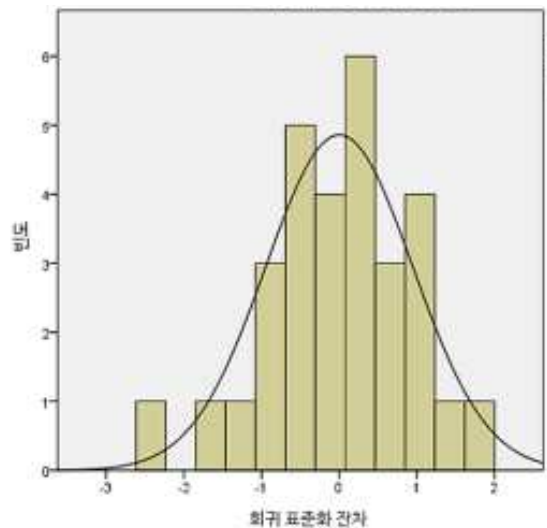


그림 7. 정치+경제+문화적 변수의 잔차 정규성 히스토그램
 Figure 7. Residual Normal Histogram of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Fac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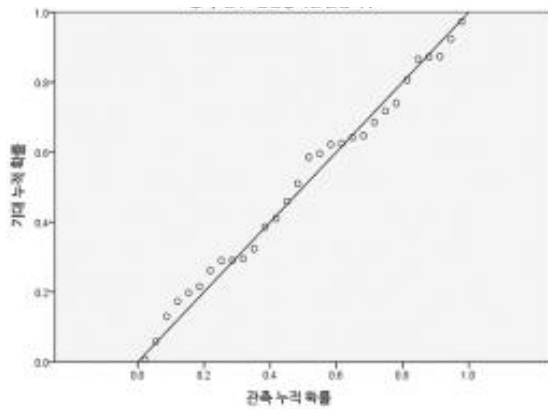


그림 8. 정치+경제+문화적 변수의 잔차 정규성 도표
Figure 8. Residual Normality Diagram of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Fac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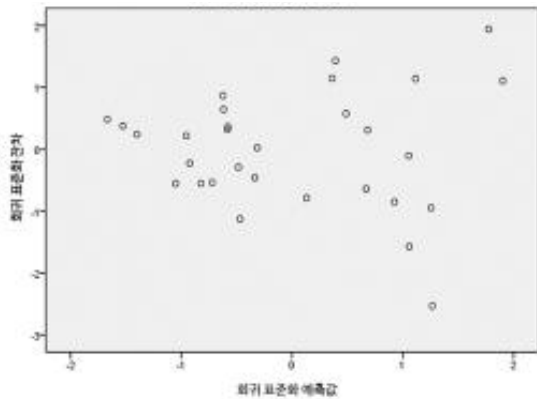


그림 9. 정치+경제+문화적 변수의 잔차 산점도
Figure 9. Residual scatter plot of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Factors

V. 결론

본 연구는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그리고 문화적 요인이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7가지 정치적 변수 중 중국의 정권,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 횟수, 양국 간 회의나 회담 횟수, 중국의 정치적 요인이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밖에 경제적 요인으로 분류하였지만 정치적 요인으로도 볼 수 있는 한중 FTA의 발효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정치적 우호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시진핑 정권, 양국의 회의나 회담 횟수, 한중 FTA의 발효이며 정치적 긴장감과 관련이 있는 것은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이다. 분석 결과 우호성은

양(+)의 상관관계를, 긴장감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경제와 관련된 정치적 우호성(한중 FTA 발효)은 정치적 분야에서만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요소들보다 더 가시적으로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치적 요인 중 사드로 인해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확연히 줄어서 유의하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실제 분석결과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사실 사드 배치로 인한 한한령 실시 기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적 요인이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한중 FTA의 발효가 안정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한중 FTA가 관세 철폐로 인한 상품무역 증대 효과 외에도 관광과 같은 서비스 분야의 협력을 촉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국화장품이라는 한류 변수가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화장품 자체가 곧 중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의미이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한국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우선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정치적 우호 정도가 중국인의 한국 관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국은 그동안 늘 취해왔던 미중 간 ‘등거리 외교’를 다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외교 방식은 ‘경제는 중국, 정치는 미국’이라는 인식 아래에 생겨난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중국은 경제를 정치, 외교와 분리시켜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한국이 미중 간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인가를 한국의 대중 경제의존도와 연관시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은 2018년 들어 나타난 한반도 정세의 완화를 한중 간 정치적 우호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한때 ‘차이나 패싱’이 거론되고 나서 한중 양국 간 고위급 회담이 잦아지고 이후 사드 보복조치가 완화된 점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한중 FTA의 발효가 중국인의 한국 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고려해 향후 한중 FTA의 후속협상에서 서비스 부문의 상호 개방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경제영토를 넓히는 한편

중국인의 한국 관광을 보다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교역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국은 부상하고 있는 동남 아로의 진출도 물론 확대해야겠지만 중국이라는 제조 기지와 내수시장도 여전히 중요시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문화적인 요인도 중국인의 한국 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한류문화 확산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한류가 실질적인 중국인의 한국 관광과 한국 상품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품질, 가격, 프로모션, 유통, 소비자의 호감도 유발 등 다방면으로 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31, 32]

References

- [1] Park, Moonsoo, Donghee Lee, Jeehae Park, and Jinkyung Koo (2014), "Economic Impacts of Increasing Chinese Tourists Visiting Korea and Its Implications", ISSUE PAPER 2014-361, KIET.
- [2] Sohn, Il-Hwa (2015), "Select Attributions, Revisit and Recommendation of Chinese Tourists Visit Duty Free Shop: Focused on Hotel Duty Free Shop of Chinese Tourist Visit", Northeast Asia Tourism Research 11(3): 17-34.
- [3] Kim, Eun-Hee (2017), "Study on Importance of Cosmetic Surgery Tourism Motivations and Selection Attributes of Chinese: Focusing on Interpersonal Influence and Cosmetic Surgery Experienc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8): 697-711.
- [4] Quan, Wei, Hye-ran Kim, and Heesup Han (2018), "Impact of THADD on travelers' shopping behaviors : From the perspectives of Chinese travelers", KJHT 27(5): 103-119.
- [5] The Korea Tourism Knowledge & Information System, <http://www.tour.go.kr> (Search Date: 2018.12.30.).
- [6] Jung, Yuiryong (2018), "Semantic Network Analysis for the President Directions Item : Focusing on Patterns(2001~2009)",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4(1): 129-137.
- [7] Bitner, Mary Jo (1992), "Service scapes: The Impact of Physical Surroundings on Customers and Employees", Journal of Marketing 56(2): 57-71.
- [8] Jeon, hyungkyoo, In-ho Kang, and Wonseb Cho, (2010), "A Study on the Structural of Characteristics in Tourism Site, Tourists' Perceived Value,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Korea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25(3): 237-258.
- [9] Yo, Jung-kyung and Wonseok Seo, (2014), "The Effect of Brand Personality of Cultural Contents in Korean Wave on Intention of Revisit to Korea Tourist: Focused on Chinese",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26(20): 23-44.
- [10] Lee, Jong-Joo (2016), "Effect Relationship among Korean Wave Involvement, National and Tourist Destination Image and Visit Inten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10): 454-466.
- [11] Korea Immigration Service (2006). 「Statistical Yearbook of Immigration 2006」.
- [12] _____ (2007). 「Statistical Yearbook of Immigration 2007」.
- [13] _____ (2008). 「Statistical Yearbook of Immigration 2008」.
- [14] _____ (2009). 「Statistical Yearbook of Immigration 2009」.
- [15] _____ (2010). 「Statistical Yearbook of Immigration 2010」.
- [16] _____ (2011). 「Statistical Yearbook of Immigration 2011」.
- [17] _____ (2012). 「Statistical Yearbook of Immigration 2012」.
- [18] _____ (2013). 「Statistical Yearbook of Immigration 2013」.
- [19] _____ (2014). 「Statistical Yearbook of Immigration 2014」.
- [20] _____ (2015). 「Statistical Yearbook of Immigration 2015」.
- [21] _____ (2016). 「Statistical Yearbook of Immigration 2016」.
- [22] _____ (2017). 「Statistical Yearbook of Immigration 2017」.
- [23] Korea Immigration Service, www.immigration.go.kr (Search Date: 2018.10.18.).
- [24]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ttp://www.mofa.go.kr/www/index.do> (Search Date: 2018.12.12.).
- [25]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ttp://www.mnd.go.kr/mbs/mbs/mnd/suview.jsp?id=mnd_011701010000 (Search Date: 2018.12.12.).

- [26]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http://www.fta.go.kr/cn/> (Search Date: 2018.12.12.).
- [27]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www.stats.gov.cn (Search Date: 2018.11.02.).
- [28]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http://stat.kita.net/main.screen> (Search Date: 2018.12.12.).
- [29] Park, Seung Hyeok (2018), "China Economic Trends and Market Information in the First Half of 2018",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 [30] Baidu Index, <http://index.baidu.com/v2/main/index.html#/trend> (Search Date: 2018.12.12.).
- [31] Koo, Ja-Bong (2018), "A Study on the Training Plan of Local Culture Promotion Personnel through the Migrant Women in Uljin-gun",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7(1): 186-198.
- [32] Bae, So-Jeong, Ha-Neul, Lim, and Kyoung-A Kim, (2018), "The Effects of Character Characteristics of Collaboration Cosmetics on Consumer Preference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4(4): 1-10.